

Global Non Tariff Barriers Issue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국가별 가당 음료 내 설탕 함량 줄이기 위한 움직임 보여...



WHO,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당 음료 내 설탕 함량 줄일 것 권고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016년부터 소아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2018년 2월에는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설탕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였음. WHO의 발표에 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미국, 설탕세 도입 및 문구 라벨 표시 정책 채택

지난 7월, 연례 회의에서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가당 음료(SSBs, Sugar-Sweetened Beverages)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였음. 이 정책은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 내 가당 음료 구매 금지,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알리기 위한 라벨링 내 경고 문구 표시 등임. 또한, 미국의사협회(AMA)는 병원과 의료 시설에서 물, 맛을 첨가하지 않은 우유, 커피, 무가당 차 등 건강 음료를 제공할 것을 권유함. 미국의사협회(AMA) 이사회 임원인 윌리엄 E. 코블러(William E. Kobler) 박사는 “과도한 설탕 소비는 중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가당 음료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질병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

Global Non Tariff Barriers Issue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청량음료 제조사, 설탕 사용 줄여나갈 것

지난 6월, 코카콜라(Coca-Cola)와 펩시(Pepsi)를 포함한 호주 최대 청량음료 제조사들은 업계 전반에 걸쳐 설탕 사용량을 7년 간 5%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함. 호주 인구의 1/3이 비만으로 OECD 발표에 따르면, 호주는 선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음. 비만은 당뇨병부터 심장 질환까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량음료 제조사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임. 호주음료협회(Australian Beverages Council) 제프 파커(Geoff Parker) 회장은 “2020년까지 청량음료 제조사들이 음료 100ml 당 총 설탕량을 10% 줄이고, 2025년까지 그 비중을 20%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뉴질랜드, 호주의 설탕 함량 감소 정책에 동참 가능성 높아...

지난 7월, 뉴질랜드 청량음료 업계는 호주의 2025년까지 설탕량을 20% 감축하기로 한 방침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뉴질랜드음료협회(New Zealand Beverage Council)는 회원들과 호주 방침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힘. 한편, 코카콜라 아마틸(Coca-Cola Amatil)의 앨리슨 왓킨스(Alison Watkins) CEO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020년까지 설탕량을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함

가당 음료 내 설탕 함유량 규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

전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설탕 함유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임. 향후 해외로 청량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국가의 설탕 함유 규정에 대해 예의주시하여 통관거부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WHO, 설탕 함량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www.who.int/elena/titles/ssbs_childhood_obesity/en/

출처

WHO, Reducing consumption of sugar-sweetened beverages to reduce the risk of childhood overweight and obesity, 2018.02

Medical Express, AMA adopts policy to cut sugar sweetened drink consumption, 2018.07

Channel Newsasia, Australia's soft drink makers promise sugar cuts to help health, 2018.06

Food Navigator-Asia, Kiwi Beverage industry open to taking Australia's lead in sugar reduction, 2018.07